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6월 25일(주일) 제1153호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과 보내심



2017 마리아행전 'SENT 보냄 받은 자' ... 3천5백 명 운집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직장과 다음 세대 위한 부르짖음

“주님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역시 기도였다. 여성들의 기도는 강했고, 그 강력한 기도가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 직장, 청년과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막 오른 2017 마리아행전 'SENT 보냄 받은 자'에는 매일 3천5백 명의 마리아들이 운집해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직장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염없이 부르짖었다.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과 보내심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이 시대 마리아들의 기도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샘솟았다. 이번 마리아행전은 이 시대 마리아들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장(場)이었다.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는 '깨어 기도하는 여성'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라와 교회가 위기일수록 마리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는 '예수 닮은 자'를 주제로 강의하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당

부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보냄 받은 자'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며 이 시대 마리아들에게 "부르심의 원리대로 문제, 연약함, 아픔이 있기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권면했다.

직장인 마리아들을 위한 저녁집회에서는 일터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선포됐다. 김윤희 교수(FWIA 아시아 대표)는 "여성들이 일터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다"고 했고, 김하중 장로는 "상사와 동료들을 축복하고, 겸

손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급하게 기도가 필요한 곳을 소개하고 중보기도도 이어졌다. 탈북민과 북한, 이주민과 미혼모, 동성애 문제를 조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뜨겁게 중보기도 했다.

한영자 권사(강남A공동체)는 "이번 집회에 참석하면서 과거만큼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러 새벽기도에 나오겠다"고 약속했다. 네팔에서 온 브린다 성도는 "누구보다 이주민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위한 기도가 부족했다"면서 "이주민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5면〉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양지 온누리교회 창립 5주년

오늘 오전 11시 창립감사예배

오늘은 양지 온누리교회 창립 5주년이다. 오전 11시 양지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창립 5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추계리에 위치한 양지 온누리교회는 2012년 국내 9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열방을 품은 전원교회'를 표방하며 선교사들을 섬기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

다.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편 7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부터 '금요성령집회'를 개최한다. 사전에 신청하면 숙소를 이용할 수도 있다.

문의: 031-331-8171

/ 김영선 기자

여름 아웃리치 후기 및 사진 공모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로

7월과 8월 온누리신문은 여름사역 특집 신문으로 제작된다. 이에 따라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여름 아웃리치 후기와 사진을 공모한다. 성인공동체, 차세대, 대학청년부, 각 사역팀의 국내외 아웃리치 간증, 아웃리치 현장을 담은 생생한 사진, 후기

를 쓴 성도의 얼굴 사진을 보내주면 본지에 게재해준다.

원고분량은 A4용지 1장, 글자크기는 10포인트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onnuriweekly@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196

이재훈 담임목사, 온누리 선교 방향제시

“성도들 직접 참여하는 선교 모델 만들어야”

성도참여, 일본선교 지속, 이주민선교, 사회선교 집중



2017 장로수련회에서 이재훈 담임목사가 온누리 선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지난 9~10일 개최된 '2017 장로수련회'에서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을 제시했다. 키워드는 네 가지다. 성도참여, 일본선교 지속, 이주민선교, 사회선교 집중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은 장로수련회 질의응답 시간에 정학영 장로가 질의하고 이재훈 담임목사가 답변한 내용을 요약했다.

/ 정리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러브소나타를 일본에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재훈 목사(이하 이): “2007년 시작한 러브소나타가 올해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러브소나타가 현지화가 돼서 모델이 되고 재생산하는 패턴이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본 교회들이 이러한 역할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본 교회에는 아직도 집회 준비모임을 하려고 해도 차비가 없어 참석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일본 교회가 연합해 큰 집회를 한다는 것이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러브소나타는 일본에서만 집중하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지정학적, 역사적 의미로 보았을 때도 일본을 책임져야 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악연이 있는 나라이지만 우리가 복음과 사랑으로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본 교회의 부흥이 올 때까지 러브소나타와 일본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남미 지역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남미선교는 북미에 있는 한인교회에 맡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으로 가까

운 나라를 섬기는 것이 먼 나라를 섬기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미에 있는 온누리 해외비전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가 남미선교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럽선교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건물은 있지만 성도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혈값 때문에 나오고 있고, 술집이나 이슬람사원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한국 교회가 유럽의 예배당들을 사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곤 합니다. 우리에게서 영어권에서 공부한 글로벌한 인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럽의 영혼을 깨우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주민선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이주민선교는 선교의 큰 축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지가 우리 안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해외선교에 맞먹는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2억 명 이상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죽음이거나 비참한 삶이 될 수 있는 무슬림들이 이주를 통해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난민의 경우도 그렇습

니다. 요르단이나 시리아에 있는 난민촌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채플을 운영하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신앙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난민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주민들을 정부가 담당하고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주민들을 환영하지 않는 배타적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영국의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자신을 파송했던 영국이 선교 대상국가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해외선교를 그만큼 했으니까 충분하다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주민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선교적 마인드로 대응해야 합니다. 선교적 공동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선교의 한 영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산M센터를 중심으로 한 이주민사역에 더욱 투자해야 합니다.”

사회선교의 방향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온누리교회가 사회선교를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과를 뚜렷하게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마루교회가 하고 있는 노숙자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목욕탕 건립을 위해 비전현금을 봉헌했고, 마포공동체와 남대문5가공동체가 노숙자들과 함께 서

울역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거북이마라톤이나 자선장을 열어 목욕탕 건립을 위한 기금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노숙자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산마루교회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듯 사회선교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온누리교회에는 선교 관련 기관이 27개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단체를 후원하는데 온누리교회는 자체적으로 선교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선교는 선교단체가 하는 것이고, 교회는 선교단체를 잘 도우면 선교를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단체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1930년대 저명한 롤랜드 알렌(Rolland Allen)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단체의 존재는 교회와 선교의 이혼으로 생겨난 존재다.”

하나님은 교회 자체를 선교단체로 만드셨는데 교회가 선교하지 않아 바깥으로 나간 형태가 선교단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선교단체를 후원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교 형태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바람직한 형태는 교회와 선교가 재결합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자체적으로 선교단체를 갖고 있다고 해서 타 선교단체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누리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선교단체를 가장 많이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와 선교단체가 융합된 교회가 더 선교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형태의 교회가 바로 온누리교회와 전주 안디옥교회입니다. 각각 두란노해외선교회(TIM)와 바울선교회라는 자체 선교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를 돕기도 하고, 자체적인 선교단체를 통해서 스스로 선교하는 교회들이 결국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선교 모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역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그런 교회는 에너지도 비전도 없는 교회이며, 젊은이들이 떠나고 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들이 더 많이 헌신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사역이 많다고 하지만 수만 명의 성도들이 헌신하고 함께 참여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사역의 개수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역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주시기에 인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많은 내용들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잘 보여 봐. 이 조건들을 너희가 통과하면 내가 복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법과 규칙들을 까다롭게 제시하고 그것을 통과한 우수한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넓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열망하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고, 불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래로 우리를 축복해 오셨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공식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스러움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던 한 나를 통해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워하던 나오미와 룯에게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연속되던 요셉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셨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통해서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복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미 복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야만 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주셨던 약속 자체에 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수많은 신령한 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엡 1:3).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복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는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소위 ‘변영신학’ 또는 ‘변영신앙’은 우리가 버트만 누르면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는 것처럼 해석하지만 오늘 신명기 말씀은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되고 약속된 복이 얼마나 부요하고, 놀랍고, 충만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 줍니다.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밖에 주어지는 것들은 모두 선물입니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선물 자체가 복된 것이 아닌 이유는 복된 선물로 인해서 저주의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992년 미국의 유명한 요트 항해사 마이크 플랜트가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북대서양 횡단에 나섰습니다. 그가 탄 요트는 당시 최첨단 장비를 탑재해서 파도를 건널 수 있었습다. 아주 견고하고 잘 준비된 요트였습니다. 그런데 11일 만에 요트가 실종됐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작전 끝에 포르투갈 앞 바다에서 요트를 발견했습니다. 항해사는 실종되었고, 그 배는 완전히 전복된 상태였습니다. 웬만한 태풍도 건널 수 있는 요트가 큰 태풍도 없었는데 왜 전복되었을까요. 배의 균형을 잡아주고 지탱해주는 부분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수면 아래에 있는 평형을 잡아주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큰 배가 평형수를 넣는 이유와 같습니다. 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수면 아래의 무게가 수면 위의 무게보다 무거워야 합니다. 수면 위에 있는 것을 아무리 멋지고 최첨단 장비로 준비했다 하더라도 수면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 떨어져 나가면 전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무게가 상실되면 삶 속에서 아무리 많은 선물이 쏟아져도 전복되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이 쏟아질수록 더 쉽게 전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인생

의 평형수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무게를 잡아주고, 지탱해 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들을 누릴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준비가 바로 순종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순종에 좌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순종에 좌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성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2-3절).

성 안에 있어도 복된 삶이고, 들에 있어도 복된 삶입니다. 성읍이나 들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국내나 해외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사느냐, 어떤 환경이나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소나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상황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끌어 가는 삶입니다.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도계 같은 삶입니다. 현재 온도가 몇 도라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삶입니다. 반면 온도조절기와 같은 삶이 있습니다. 온도조절기는 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요, 버려진 땅이지만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순종의 삶이라면 광야는 축복입니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환경이 변수가 아니라 순종이 변수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모든 면에서 확장

둘째, 하나님의 복은 어느 한 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네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땅에서 나는 것과 네 가족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바구니와 네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4-6절).

안에서 복된 삶이 밖에서도 복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복은 어느 한 면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사람만이 아니라 소유된 동물에게도, 광주리만이 아니라 떡 반죽 그릇에도,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활동 전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안에 있던 밖에 있던 하나님의 복은 어느 한 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복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네 바구니와 네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나에게 있는 바구니와 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는 것을 상상하십니까.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반죽 그릇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된다는 뜻 아닐까요. 내 반죽 그릇이 날마다 차고 넘쳐서 풍족한데도 차고 넘치는 것을 복되다고 할까요. 여기서 복되다는 것은 내 바구니가 많은 사람에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한 곳에 머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정체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복된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

셋째, 이 복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순종의 백성이 되어 세상에 복된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네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1절).

“여호와께서 네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네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네 앞에서 일곱 길로도 망할 것이다. (13면에 계속)



SENT 보냄받은 자 첫째 날, 돌이키는 자

2017 마리아행전 'SENT 보냄 받은 자'에 참가한 3천 명의 마리아들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역할이자 사명이고, 시급하게 기도가 필요한 곳은 탈북자와 북한, 이주민과 미혼모, 동성애 문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규현 목사, 유기성 목사, 이재훈 담임목사는 이 시대 마리아들에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부르짖으라고 권면했고, 허남일 목사, 권주는 목사, 박정림 사모, 미혼모들의 수호천사 이효찬 선교사, 김지연 약사는 기도가 시급하게 필요한 곳을 소개하며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감사들의 메시지를 요약·정리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깨어 기도하라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이 시대가 위기다. 경제, 정치, 외교 어떤 것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조용한 교회가 없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시끄럽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영적으

로 깨어 기도하지 못 하게 만드는 문화와 시대적인 공격들이 너무 많다. 세속주의는 말할 것도 없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문화를 막을 길이 없다. 이 시대 마리아들이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다. 북

음의 신발, 말씀의 검이 있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기도가 답이다. 영성이 깨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 깨어있는 성도가 기도할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엘리야가 깨어 기도할 때 나라를 살렸다. 나라와 교회의 문제는 기도가 답이다.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모든 능력은 기도를

통로로 온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소모되고 낭비 된다. 교만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돈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너무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죄성 때문에 한순간 방심하면 속물이 되어 버린다. 예수님은 바쁘셨지만 중심을 잃지 않으셨다.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나라의 경제가 부강해지게 해달라고, 자녀가 성공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깨어 쓰임 받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 일에 여성들이 앞장서야 한다.



탈북자와 북한

허남일 목사
(한사랑교회)

어떠한 정치, 독재, 군사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막을 수 없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해방 전에는 북한에 교회가 3,006개나 있었다. 지금은 홍보형 교회 2개만 남았다. 우리가 주목해

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북한에 15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대부분 묵묵 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북한 교회는

독재체제에서 순수하고 순교적인 믿음을 키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한국 교회가 북한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민족을 품어야 한다. 정치적, 지리적 통일은 의미가 없다. 사람이 먼저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사람이 통일될 수 있다. 3만 400여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있는데 한해 56명이 자살하고 있다. 그 힘든 북한 생활과 탈북 과정을 이겨낸 사람들이 한국에서 자살하고 있다. 교회가 그들을 품어야 한다. 탈북자들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적당한

돈으로 탈북자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시도는 그만해야 한다.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을 제자화 하는 것이 통일의 첫 걸음이다. 북한선교, 통일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교회 성도 전체가 함께 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통일을 주실 것이다. 북한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성도, 수용소 끌려간 청년, 가정교회를 꾸리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중국 곳곳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팔려가는 탈북자 자매들을 위해서, 탈북자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일의 영성을 회복하라

김윤희 교수
(FWIA 아시아 대표)

구약의 율법에는 “가난한 고용인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다. 일용직의 품삯은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하라고 하셨다. 외국인과 고아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셨다. 이처럼 공정거래를 하고, 장부를 속이

지 말고, 임금을 체납하지 않는 것이 일터에서의 영성이다. 기독교인들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감동이 있고, 누군가에게 유익해야 한다. 돈은 그 다음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다. 이때 다스린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다. 아바드는 일과 예배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일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직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을 한다. 우리 모두가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런데 일터에 죄가 들어왔다. 갑질하고, 불량품을 만들고, 장부를 속이고, 세금을 탈세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다. 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님에도 스트레스를 주고 생명까지 앗아간다. 성경적

이지 않은 일들이다.

일터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지킨다’는 단어에 답이 있다. 지킨다는 단어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역할이 있다. 남자들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돕는 배필인 여자의 정체성이다. 직장인 여성들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마리아들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온다.

SENT 보냄받는 자 둘째 날, 예수 닮은 자

예수 닮은 자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말씀 속에 답이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을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본적으로 기도는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문제다. 죄가 없을 때 아담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였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기도는 힘든 것이 되었다. 기도응답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도가 무거워진 것이다.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생겼다. 바로 십자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된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이유이다.

이주민과 미혼모를 섬기자



권준은 목사
(구미국제교회)

민, 결혼 이주여성, 한국인 근로자들까지 예배드리고 있다. 이주민들의 형, 누나가 되어 그들이 아이를 낳으면 보살피려고, 추방당할 때는 살림을 챙겨 보내주기도 했다. 중국으로 추방당한 한 자매는 나를 유일하게 알고 지낸 한국인이라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아직도 한국에는 이주민들을 가로막는 문턱이 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주민들을 품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와 교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조금 불편해한다. 교회가 이주민들의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외국인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면 그들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것이다.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효천 선교사
(위드미한부모가정지원센터)

잃어버린 딸들이다. 24세 미만 청소년이 혼자 아이를 낳으면 미혼모라고 부른다. 미혼모들은 어디에서도 환영 받지 못한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철저히 혼자 된다. 출산비용, 양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미혼모들이 성매매를 하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다. 매달 아이에게 들어가는 40만원이 없어서 말이다. 누군가는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미혼모들을 왜 도와 주냐고 묻는다. 세상의 눈에는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 성매매 여성으로 보일지라도 내 눈에는 그녀들이 하나님의 딸들로 보인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세상 곳곳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있다. 성도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흔히 미혼모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여성,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혼모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치는 하나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



김하중 장로
(전 통일부 장관)

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다. 상사를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상사를 위해 기도, 축복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메신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 어려움이 많다.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다. 상사를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상사를 위해 기도, 축복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주께 하듯 대해야 상사가 신임한다. 동료들과도 마찰이 생긴다. 동료들끼리 비방하고 시기할 수 있다. 그럴 때 맞대응 하면 안 된다. 겸손, 온유, 사랑으로 비방을 물리쳐야 한다. 누군가 나를 욕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상사의 자리에 있을 때는 아랫사람들에게 항상 의롭고 공평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기 때문에 결국 환란을 당한다. 크리스천들은 그 래서는 안 된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실력을 갖췄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리더가 된다. 그런 리더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SENT 보냄받는 자 셋째 날, 보냄 받는 자

보냄 받는 자



이재훈 목사

른 방향으로 보내심을 받기도 한다.

성경에서 보냄 받은 대표적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에게 보냄 받은 자의 원리가 숨어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메시아가 나오는 민족의 뿌리 되게 하셨을까. 메시아가 나오는 민족의 근원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보냄 받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보냄 받은 자이다. 부르심은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있다. 나의 선택이나 능력과 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부르심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통 속에서 훨씬 잘 들린다. 하란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였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숨기고 싶은 약점과 어둠을 드러내 반전시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으며, 형제의 죽음과 이민이라는 고통이 있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모래알 같은 자손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누군가에게는 남편을 전도하는 것이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배경을 보고 부르시지 않는다. 열악하면 더 주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르심 속에 있다.

동성애



김지연 약사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결정권으로 미화시킨다. 동성애를 다양성의 시대에 맞는 트렌드라고 부른다. 전 세계에 문화와 법을 통해 동성애가 퍼지고 있다. 동성간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고 있다. 미국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이 통과되고 난 뒤부터 동성애를 그르다고 말하지 못한다. 몇몇 주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성경책을 불온서적이라고 한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목사들이 감옥에 가고,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 동성애 차별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있던 자리에 클럽과 무슬림사원이 세워지고 있다. 영국은 3천 개의 교회가 팔렸다. 또한 수간, 물건, 시체, 아동성애자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천 명 중 3명이 동성애를 경험한다. 또 1만5천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다. 10~19세 에이즈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뻔했고, 동성애 옹호 법안이 등장하려고 한다. 교육부의 성교육표준교안에 남성, 여성 외에 여러 성이 있다는 내용이 실릴 뻔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울 수도 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가 그릇 되다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서명하고, 시위하고, 적극적으로 동성애 반대 참여해야 한다.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보석 같은 신앙고백

예수사랑부 창립 14주년 감사예배와 세례식

(세례 8명, 입교 1명)

서빙고 예수사랑부 창립 14주년 감사예배와 세례식이 거행된 지난 주일(18일)은 예수사랑부 잔치날이었다. 감사예배만으로도 풍성한데 세례식까지 더해져 더욱 뜻 깊었다. 이날 세례식에서는 예수사랑부 소속 지체 8명이 세례를 받고 1명이 입교했다. 김기열, 조영은, 왕해진, 양혜미, 홍승희, 이관배, 유현, 조재환, 송영해 성도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의 보석 같은 신앙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그 감동적인 현장에 다녀왔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예수님께서 항상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사랑부 지체들의 간증보다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그들의 입술에서 꽃향기가 났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수한 사랑고백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날 세례식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예수사랑부 지체의 가족도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장화수 형제(38세)의 이모 송영해 성도가 그 주인공이다. 그녀는 주일마다 조카와 함께 예수사랑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싹텄다.

“저는 교회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화수가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교회에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장화수 형제는 뇌병변장애 1급이다. 팔, 다리를 움직일 힘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송영해 성도는 몸이 불편한 조카와 함께 13년 동안 예수사랑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화수 아빠가 일본인이예요. 화수 엄마도 지금 일본에 있고요. 화수 엄마가 종종 한국에 오긴 하지만 오래 있지 못해서 제가 화수를 돌보고 있어요.”

그녀는 화수를 천사라고 생각한다. 화수의 순수한 모습이 그렇게 예뻐 수가 없다고 했다. 화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보다 좋은 순 없다고 했다. 그녀가 예수사랑부에 폭 빠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예수사랑부 교사들의

현신적인 사랑 때문이다.

“예수사랑부 교사들이 화수를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가족보다 더 아끼고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있어요.”

진짜 기쁨, 아름다운 공동체, 감동적인 사랑

송영해 성도의 말처럼 예수사랑부 교사들의 사랑은 감동 그 자체다. 예수사랑부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모른다. 예수사랑부 지체들이 기뻐하면 교사들은 배로 기뻐하고, 다치기라도 하면 누구보다 마음 아파한다. 김지연 교사도 그렇다. 그녀는 2003년부터 11년 동안 사랑부(당시 초·중·고등부)를 섬겼고, 2015년부터 예수사랑부를 섬기고 있다. 그녀에게 예수사랑부는 천국이 따로 없다. 한번 맛보면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 했다.

“장애인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발을 구르고 손뼉치고 몸을 흔들면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거든요. 어디 그뿐인가요. 작은 사랑을 주면 예수사랑부 친구들은 배로 돌려주더라고요. 예수사랑부를 섬기면서 제가 더 큰 은혜 받고,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사랑부 교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 예수사랑부의 이름대로 늘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사랑부가 올해 창립 14주년을 맞았다. 예수사랑부는 발달장애를 가진 청장년들을 위한 예배공동체다. 2003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



지난 18일 예수사랑부 창립 14주년 감사예배에서 세례식이 거행됐다.

인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교육을 제공하려고 사랑부로부터 분리했다. 당시 3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예배드리던 공동체가 지금은 150명이 넘는다. 매주 주일 11시 20분 서빙고 한동홀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예수사랑부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캠프(아웃리치), 모자이크, 온사랑합창단, QT책 〈영혼의 빛〉, 말씀쓰기가 그것이다. 캠프(아웃리치)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개최하고 있다. 겨울캠프는 새로 만난 선생님과 친구들이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여름캠프는 체육활동, 말씀 학습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보은, 소록도, 예수원, 육지도, 홍성, 속초, 문경, 거제도, 횡성 등지를 다녀왔다. 올해 여름캠프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화성산예수마을에서 진행된다.

‘모자이크’는 재가(在家)장애인들을 위한 주중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온누리 기독교문화전시장에서 진행된다. 복지관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장애인들에게 음악, 미술, 연극놀이, 성경공부, 요리, 현장체험(박물관, 청와대 방문)을 제공해주고 있다.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돕고 있다.

발달장애인합창단 ‘온사랑합창단’은 예수사랑부에서 탄생했다. 전국 합창대회와 경연대

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고, 교회, 병원, 교도소, 학교 등지에서도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QT책 〈영혼의 빛〉은 예수사랑부에서 자체 제작한 월간지다. 발달장애인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재이다. 예수사랑부 공과공부 시간에 활용하고 있다. 매주 주일 오전 9시에는 말씀쓰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책도 예수사랑부 교사들이 직접 만들었다. 예수사랑부 청년들은 말씀을 쓰면서 글씨를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20명의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다.

매월 ‘선한 사마리아헌금’과 ‘사과나무헌금’도 봉헌하고 있다. 선한 사마리아헌금은 예수사랑부의 어려운 청년들과 교사들을 돕고, 사과나무헌금은 캠페인을 통해 동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메시(15세)와 부르키나파소의 그레이스(5세)를 후원하고 있다. 온두라스의 타니아도 10년 동안 후원했다. 올해 장애인주일에 개최한 자선장의 수익금은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외국의 발달장애인들에게 전액 기부했다. 예수사랑부의 사랑이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예수사랑부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향한 사랑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목회칼럼

은혜의 날이 쌓여 벌써 14년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온누리교회와 성도들께 감사드린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를 땅에 심겨진 씨가 스스로 자라 싹이 트고 이삭이 되어 곡식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예수사랑부가 그렇다. 지난 14년 동안 쌓이고 쌓여 교사 75명과 청년 119명으로 풍성하게 자랐다.

예수사랑부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교사들이 많다. 교사들 덕분에 홀로 서기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교사들의 섬김을 통해 능률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은혜의 법칙이 무엇

인지를 보게 된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인 예수사랑부 지체들을 마음으로 품게 해달라고 간구한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섬기는 교사, 목회자가 되기를 꿈꾼다.

가장 큰 감동은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발달장애인들의 마음을 볼 때다. 어린이와 같이 정말 순수하다. 그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다. 일곱 번째 해가 일곱 번 지나면 모든 것에 회복과 기쁨과 감사의 희

년이 온다. 예수사랑부도 일곱 해의 희년을 두 번 거쳤다. 이 희년의 회복과 기쁨과 감사를 예수사랑부가 항상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주님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장애인들이 더 이상 장애로 인해서 소외당하고, 외로워하지 않고, 예수사랑부 안에서 위로와 따뜻함을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나님은 14년 동안 예수사랑부에 기쁨의 날을 쌓으셨다. 이 쌓음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하실 것이다. 이제 예수사랑부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보기를 원한다. 그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발달장애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고,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천국 말이다. 처음 것은 지나갔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한다. 예수사랑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이사야 40:1)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위로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아멘!



유승덕 목사
(예수사랑부 담당)

14년 동안

그들의 선교열정은 언제나 청춘

장로선교사들이 써 내려가는 또 하나의 선교 역사

온누리교회 선교 역사는 장로선교사들과 함께 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장로선교사들이 많다. 그들은 선교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이다. 온누리교회 창립 초창기부터 장로선교사들의 활약이 대단했다. 농장, 교육,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 건축과 기술, 탈북자 사역 등에 헌신했다. 죽음과 질병도 그들의 선교열정을 가로막지 못했다. 온누리교회 장로선교사들의 선교열전을 기록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두 번의 암투병에도 결코 선교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는 내 삶의 의미이자 액기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 나는 간증의 주인공은 함선호 장로다. 함 장로는 장로선교사이다. 6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두 번의 암 투병과 두 번의 소송을 당했다. 결국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했다. 그는 온누리교회 1,000호 파송 선교사다.

“환갑이 되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후반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 방법이 선교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함 장로는 동아시아B국에서 농장 비즈니스 선교를 했는데 또 한 가지 미션이 있었다. 바로 현지 선교사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이었다. 그는 선교사들의 쉼터이자 생명수로 통했다.

“늦은 나이에 선교를 가보니 현지 선교사들이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제가 현지 선교사들을 성심성의껏 섬기면 그분들이 큰 힘을 얻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지 2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다. 한국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신장암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삶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더라고요.”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위기가 또 찾아왔다. 신장암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2년 뒤 또 다시 암 진단을 받았다. 이번에는 전립선암이었다. 처음과 달리 이번에는 좌절하지 않았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번에도 깨끗하게 치유해주셨다. 그런데 고난이 또 다시 그를 찾아왔다.

“현지 정부로부터 비즈니스 사역이 노동법 위반이라는 소송과 땅 값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농장을 빼앗기 위해 ‘토지계약무효’ 소송을 걸었다더라고요. 그 나라의 법도 모르고 언어도 유창하지 않으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왼쪽 시계방향으로 이병현 장로, 김상인 장로, 이옥연 장로,故 조성록 장로, 함선호 장로, 박일구 장로.

하나님은 그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런데 시련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선교사가 된 지 6년째 되던 해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했다. 끝도 없이 위기와 시련이 이어졌지만 그는 절대로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은 후배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지난해 장로를 은퇴하고,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선교 훈련생을 교육하고 있다.

“6년 동안 선교사로 훈련받았던 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제 평생 가장 값진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김소망(가명) 장로는 한 번도 선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만큼 선교가 주는 기쁨을 맛볼수록 달콤했다. 그는 1991년 동아시아B국으로 파송 받았다. 선교사 중에서도 선교에 폭 빠진 인물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다. ‘선교사 기도모임’과 ‘동아시아B국을 사랑하는 기도모임’이 그의 선교열정을 볼태웠다.

그는 2009년 다시 동아시아B국 땅을 밟았다. 당시 나이 55세였다. 동아시아B국에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보급했다. 그러던 중에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미전도종족과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나라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 때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산골 아이들에게 언어와 복음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했지요.”

외국인 선교사가 산골을 찾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오랜 연구 끝에 환경이 열악한 산골 학교를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정부의 승인도 받았다. 그는 미전도종족과 함께 보낸 크리스마스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낮에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성탄절에 대해 설명하고, 저녁에는 주민들을 초대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성탄절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외쳤어요. 주민들도 덩달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외쳤어요.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나라는 기쁨이었다. 그 기쁨이 김 장로가 선교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이다.

장로선교사들의 선교열전

장로선교사들은 온누리교회 창립 초창기부터 장로가 먼저 선교에 헌신하는 모범을 보여왔다.故 조성록 장로는 온누리교회 1호 장로 선교사다. 1994년 64세에 일본 선교사로 파송됐다. 쳐다보기도 싫어했던 일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었다. 가정교회를 시작으로 아치요 온누리교회를 개척했다. 일본 온누리비전교회의 초석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혈액암 투병을 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故 박승철(박모세) 장로는 온누리교회 첫 순교자다. 1993년 동아시아B국으로 파송 받았다. 학원 선교 및 제과제빵 사업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다 2000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양자처럼 기르던 탈북 어린이가 위험에 처하자 피신시켜주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故 김내현 장로는 두란노 바이블칼리지와 BEE Korea 대표를 역임할 정도로 말씀사역에 열정이 있었다. 64세에는 싱가포르 건너가 생명의말씀교회를 온 마음으로 섬겼다.

동아시아B국 농장사역에 힘쓴 장로선교사들도 있다. 김광선, 최선수, 함선호 장로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농장사역 외에도 교회 개척, 탈북자사역을 섬겼다. 교육선교에도 앞장섰다. 강철호 장로는 남아시아국 대학교수, 원우현 장로는 동아시아A국 국제대학 선교미디어 부총장으로 섬기고 있고, 이병현 장로는 동아시아B국 초등학교를 섬겼다. 박석봉, 김상인 장로는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 선교에 헌신했고, 이환진, 박일구, 정영열 장로는 건축과 기술로 선교지를 더 멋진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박용국 장로는 남아시아국에서 근로자 사역을, 치과의사 박영국 장로는 동아시아B국에서 의료사역을 담당했다.

선교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1호 장로선교사 조성록 장로부터 지난해 4월 아프리카C국으로 파송된 정영열 장로까지 그들의 선교열정은 언제나 청춘이다.

온누리교회 장로선교사

장로선교사	사역
강철호 장로	자비량 전문인선교사, 인도네시아에서 대학교수 사역
김광선 장로	동아시아B국 TIM 파송, 농장사역 및 교회개척
故 김내현 장로	싱가폴 파송, 생명과말씀교회 사역
김상인 장로	남아시아N국 TIM 파송, 비즈니스를 통한 제자양육
김소망 장로	동아시아B국 TIM 파송, 교회개척 및 제자양육, 일대일 큐티 사역
박석봉 장로	케냐 TIM 파송, BEE 사역 및 일대일 제자양육과 교회개척
故 박승철 장로	동아시아B국 파송, 학원 선교 및 제과제빵 사업으로 복음 전파
박영국 장로	치과의사,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 연길 구강노출병원 사역
박용국 장로	남아시아국 근로자 사역
박일구 장로	남아시아M국 지진지역 복구사역, 건축전문선교사
원우현 장로	동아시아A국 국제대학 선교미디어 부총장 사역
이병현 장로	동아시아B국 초등학교 사역, 동아시아A국 사역
이옥연 장로	도미니카 TIM 파송, 막고리스교회 목회 및 공출사역
이환진 장로	스리랑카, 기술학교 디렉터, 니과라과 크리스천아카데미 사역
정영열 장로	남아시아M국 지진지역 사역 중
故 조성록 장로	일본 파송, 아치요 온누리교회 개척
최선수 장로	동아시아B국 농장 및 탈북자 사역, 현재 캐나다 내한선교사
함선호 장로	동아시아B국 파송, 농장 사역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 성가사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만난 하나님

박종호 성가사는 복음성가의 루치아노 파바로티(Luciano Pavarotti)라고 불린다. 그의 찬양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큰 은혜를 받고 있다. 그의 찬양이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투병과 간이식의 고비를 넘기고 다시 무대에 오른 박종호 성가사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다.

/ 조혜민 기자 hm030@onnuri.org

박종호 성가사는 정말 바쁜 사람이다. 현재까지 클래식컬한 수많은 CCM을 발표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찬양사역을 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몰라도 찬양은 어디선가 한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는 클래식컬한 국내 CCM에 모던 음악을 도전한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그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셨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소질을 보였다. KBS TV 프로그램 ‘누가누가잘하냐’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어려서부터 노래를 하고 자랐다. 그때 노래대회 심사위원의 눈에 띄어 선화예술고등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

그가 교회를 처음 간 것은 사춘기 시절이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친구들과 함께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려고 교회에 갔다.

“솔직히 성경 말씀은 하나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냥 노래를 배울 수 있으니까 교회를 갔어요.”

그의 감출 수 없던 음악적 재능은 대학시절 빛을 발했다. 그는 성악을 전공했는데 동기였던 성악가 조수미와 쌍벽을 이뤘다. 성공가도가 예정되어 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다. 박종호 성가사는 대학교 4학년 때 성령체험을 하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만큼 그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귀하고 소중했다.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곧바로 신학대학원에 지원했어요.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하나님과 선교가 우선이었다. 세계적인 성악가를 꿈꾸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사역자가 되기로 결단했다. 그 결단은 매우 굳건했고 최선을 다했다.

“은혜 받았다고 무작정 찬양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싶었어요.”

찬양사역자의 길로 접어든 그를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복음성가를 택했냐고 물었다.

“나에게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귀



30년 동안 찬양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종호 성가사.

한데 사람들은 그것보다 세상의 유명한 성악가가 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고, 하나님께는 최고의 음악을 드리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오페라 과정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대학원 유학을 결정했어요.”

하용조 목사는 그를 온누리교회 파송사역자로 보냈다. 발성을 공부하면서 찬양사역자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박종호 성가사는 미국 대학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뽐내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시험을 잘 봤던 그날 새벽에 숨이 막히더니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성적이 잘 받고, 소리도 잘 나왔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더니 쓰러졌어요. 수술을 잘 마치고 병원에서 지내면서 13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는데 지나고 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소식이 온누리교회에 전해졌다.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주었다. 그러던 중에 중앙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던 조은아 선교사의 고백이 그의 노래가 되었다. 조은아 작사, 신상우 작곡의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탄생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을 박종호 성가사가 불렀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를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박종호 성가사가 찬양사역자로 활동한 지 29년이 되던 2016년이었다. 이번엔 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의 고비가 다가왔다. 미국으로 찬양집회를 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문제가 생겼다.

“미국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

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건강만큼은 자부했는데...”

다른 검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CT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결과를 보던 의사들의 반응이 이상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간에서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종양이 있다가에 암인지도 모르고 자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 못 자른다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간경화로 인해 다 굳어있고 남아있던 간은 손바닥 크기만큼의 아주 작은 부분만 남아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암이 퍼져있어 암을 잘라내면 제 몸에 간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다른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똑같았다. 간 이식만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미국에 있던 막내딸이 간을 이식해주려고 한국으로 급히 왔다. 당시 온누리교회의 이승규 박사(아산병원)가 그의 수술을 담당했다. 국내에서 그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수술이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배에서부터 갈비뼈 뒤까지 찢어서 고통이 엄청났어요. 너무 두려워서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았어요. 병실에서 모든 곳을 에워싼 기도의 향을 볼 수 있었어요. 그 기도의 향이 아픈 부위를 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기적처럼 통증이 한 대 안 맞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본 환상은 거짓이 아니었다. 퇴원하고 나서 SNS와 전화를 확인했는데 중보기도와 응원 메시지가 가득 차 있었다. 그에게 간을 이식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번 시련과 고난이 저를 단

련시켰다고 말해요. 그런데 제게 하나님은 일부러 저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셔서 단련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의 정확한 몸 상태는 건강관리를 못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고기도 8인분씩 먹고, 커피 한 잔에 설탕을 큰 수저로 5스푼씩이나 넣어 먹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운동은 하나도 안했어요. 그래서 간이 점차 굳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33년 동안을 되돌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내가 벌려놓은 일들을 하나님이 뒤집다꺼리하신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몸이 망가졌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냥 저를 꺼내주신 거예요. 나는 매순간 하나님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다시 잡아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이 다시 주신 생명의 기회를 어떻게 써야할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작년 12월쯤 ‘그동안 잘했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찬양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다시 찬양사역자로 무대에 올랐다. 다시 일어나 찬양을 했는데 찬양하던 교회에는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와 같이 암이거나 불치병, 돈, 부부, 관계문제 등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박종호 성가사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저는 죽을 고비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절망을 이길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죽음을 그대로 받아 들였습니다. 삶의 희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저를 봐서라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특집_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1. 18세기 1차대각성운동 2. 19세기 2차대각성운동 3. 20세기 아주사대부흥운동 4. 평양대부흥운동

1차대각성운동, 미국의 변화와 부흥의 시발점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돌이키면 살아난 역사적 증거가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미국의 역사다. 미국은 18세기 1차대각성운동,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2차대각성운동, 20세기 초 아주사대부흥운동을 계기로 종교적, 국가적 변화와 부흥을 경험했다. 역사신학자 조현진 교수가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중심으로 돌이키면 살아난 역사적 사실을 풀어낸 글을 4회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조현진 교수
(한국성서대학교
역사신학)

기독교 역사는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말을 증명하고 있다. 올해로 500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을 봐도 알 수 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이었다. 교황제와 면죄부 등 중세교

회의 잘못된 제도와 관습에 항거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 속에서 일어났다. 종교개혁은 유럽 교회를 갱신시켰고, 나아가 현재 서구 문명의 기반이 되었다. 미국도 영적부흥운동인 ‘1·2차대각성운동’을 통해 강대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부흥운동들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역사가 일어나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1차대각성운동의 주역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헛필드

미국의 1차대각성운동은 다소 산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다. 하나님이 1차대각성운동을 위해 사용하신 일꾼을 꼽는다면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헛필드’를 들 수 있다.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역을 살펴보고 싶다. 당시 하버드대학교가 세상 학문을 받아들이며 빠르게 세속화 길로 접어들자 미국의 신실한 청교도들은 1701년 하버드와 차별되는 새로운 기독교학교로 예일대학교를 설립했다. 예일대학교에서 성경중심적인 하나님 주권사상을 배운 에드워즈는 잠시 목회와 교수생활을 거쳐 1727년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가 목회하던 매사추세츠 노스햄턴 교회에 동사목사로 부임한다. 1729년 외조부가 죽고 그가 담임목사가 된다. 에드워즈는 노스햄턴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인 일에 무감각하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 특히 술집을 드나드는 청년들의 방탕함은 에드워즈의 걱정거리 중 하나였다.

당시 청교도들은 한 가정 당 거의 10명 정도의 자녀를 가졌다. 인구가 급증하자 농작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결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졌다. 자연스럽게 결혼도 늦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미래가 불확실한 청년들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밤에 무리를 지어 술집에 출입했고, 성적(性的) 부도덕을 일삼아 혼전임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일부 청년들은 예배 중에 목사를 비방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신앙의 자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조지 헛필드.

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 전통의 조부모와 부모를 가진 믿음의 후손들이었지만 빠르게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셨다.

1734년 6월 노스햄턴 마을 한 청년의 장례식장에서 에드워즈는 청년들에게 시편 90편 5-6절 말씀을 인용해 일침을 놓는 설교를 했다. 마을 청년들에게 방탕함과 일시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비판하며 무덤을 가리켜 “다음 주에는 과연 누가 이 자리에 누워 있을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1차대각성운동은 혼합된 공동체가
신앙공동체로 하나 됨을 인식하게 했고,
미국 전국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다. 에드워즈의 회심을 강조하는 설교와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방탕했던 청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늘 술집에 모이던 청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가정에서 성경공부를 했으며, 기도하는 신앙의 교제를 가지기 시작했다. 이 청년들의 모임이 결국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다. 청년들에게서 시작된 영적 부흥에 대한 열정은 부모 세대에게로 이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로 퍼졌다. 온 마을이 신앙의 열기와 토론으로 가득 찼다. 부흥운동은 노스햄턴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근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코네티컷 주 32개 마을로

번졌고, 다소 거리가 떨어진 뉴저지에도 부흥의 물결이 흘러갔다. 성령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받은 엄청난 양의 물과 같습니다. 그 물의 양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 높이는 높아져만 갑니다. 언젠가 이 물살을 내어보낼 때가 되면 그 속도와 파괴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물살은 지금 잠시 간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저지르는 죄악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간혀 있기를 거부하며 끊임없이 수문을 밀어내는 엄청난 압력을 막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의 회심을 일깨운 대각성 촉매제 역할을 한 에드워즈의 대표적인 설교이다.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탄식과 울음을 터트리면서 자신의 죄를 소리쳐 회개하기 시작했다. 에드워즈의 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구원의 메시지는 회심과 커다란 영적 각성을 가져오는 결정적 역할을 감당했다.

1734~35년에 걸쳐 일어난 부흥은 잠시 중단되었다가 1741년에 다시 꽃피었다. 영국의 순회설교가 조지 헛필드의 미국 방문이 계기가 되었다. 헛필드는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운동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부흥사였다. 당시 헛필드는 노스햄턴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다.

조지 헛필드는 불우한 청년 시절을 보냈지만 옥스퍼드대학교에 다니면서 Holy Club활동에 참여하고, 요한 웨슬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리기로 결심한 인물이었다. 그는 한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아니라 복음을 듣기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기로 결심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영국뿐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헛필드는 교파를 따지지 않고 어느 곳이든 자신을 초청하는 교회나 모임이 있으면 방문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야외설교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그의 집회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몇 시간씩 말을 타고 달려와 참여하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로 인기였다. 그 집회에서는 어김없이 뜨거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부흥운동이 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이를 단일한 운동으로 발전시킨 것은 헛필드의 전국 순회활동이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1차대각성운동이었다.

1차대각성운동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1차대각성운동이 미국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교회들이 성장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 독립의 정신적 기초를 놓았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미국인들은 유럽의 여러 지역,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대서양을 건너와 각기 다른 역사와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1차대각성운동은 각기 다른 이민공동체가 함께 경험한 최초의 전국적인 사건이었다. 서로 다른 역사적 뿌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대각성운동을 통해 공통된 기억과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한 것이다. 또한 그들은 대각성운동 기간에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국가적 공동체에게 특별한 섭리와 소명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확신이 국가적 언약 사상으로 발전했고,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영국에 대항하여 독립전쟁(1775~1783)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8세기 초반에 시작해서 중반까지 지속된 미국의 1차대각성운동은 다양한 이민자들이 혼합된 공동체가 신앙공동체로 하나 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합중국을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1776년 독립선언을 한 신생국 미국을 통해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셨던 것이다.

CGNTV 시청수기, 노커스 영상 공모전

시청수기 7월 31일, 영상 9월 8일까지

CGNTV에서 시청수기와 노커스 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시청수기 공모전에 참가를 원하는 성도는 CGNTV가 방송한 프로그램 시청수기를 A4용지 1~2장 내외로 작성해서 7월 31일까지 홈페이지(www.cgntv.net)나 이메일(essay17@cgnmail.net), 우편 및 방문(웅산구 서빙고로 59길 8 편성기획팀) 접수하면 된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프로그램명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작성 형식은 자유이다.

노커스 영상 공모전에 참가를 원하는 성도는 4분 내외의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아웃리치 보고영상, 기독교단편 드라마 등 기독교를 주제로 한 영상을 8월 15일부터 9월 8일까지 이메일(ucla2215@cgnmail.net)로 전송하면 된다. 시청수기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42인치 TV(대상 1명), 외식문화 상품권(최우수상 3명), 블루투스 스피커(우수상 5명) 등의 상품이, 노커스 영상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1등), 150만원(2등), 50만원(3등)을 수여된다. 문의: 시청수기 02-3275-9446

노커스 영상 02-3275-9526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제이홈 입양 전 세미나 개최

오늘 오후 5시 서빙고 꿈아이홀

사회선교부 제이홈(J Home)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양이란?'을 주제로 입양 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늘(25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2층 꿈아이홀에서 진행된다. 입양을 준비하고 있거나 입양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제이홈(J Home)은 하나님의 마음

으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가정들의 모임이다. 입양가정 네트워크 및 입양관심 가정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더 많은 가정이 입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입양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문의: 010-2049-8210

일.하.세. 아카데미 GUM예배

7월 1일 오전 8시 15분 서빙고 순형홀

'일.하.세.(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팀이 오는 7월 1일 오전 8시 15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GUM(Get Up in the Marketplace)예배를 드린다.

이날 GUM예배는 황재명 목사의 설교, 일터와 직장인을 위한 중보기도, 주제발표, 조별 나눔 순으로 진

행된다. 조별 나눔에서는 일터에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GUM예배는 미취업, 고용불안, 실업, 조기은퇴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일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예배다.

문의: 010-6321-9522

TIM 선교캠프 '열방을 기쁘게 노래하라'

Acts29 비전빌리지 8월 10~12일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25주년을 맞아 특별한 캠프가 열린다. 오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열방을 기쁘게 노래하라'를 주제로 실시된다. 이번 TIM선교캠프에서는 이재훈 담임목

사, 홍성건 목사, 한정국 선교사, 이재환 선교사가 강의한다. 선교사, 선교후원자 등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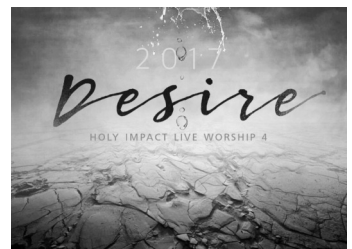
참가신청은 TIM홈페이지(timorkr)에서 하면 되고 참가비는 6만원이다.

문의: 070-4464-8118

홀리 임팩트 '라이브 워십 4집' 발매

홀리 임팩트(Holy Impact)가 '라이브 워십 2017'을 발매했다. 네 번째 음반이다. 주제는 'DESIRE'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갈망을 담았다. CD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CD에는 11곡, 두 번째 CD에는 6곡이 수록되어 있다. 원유경 목사의 자작곡 '진실한 예배자로', 이우람 전도사의 자작곡 '주님 아 니면 난 살 수 없네'도 수록되어 특



별함을 더했다. 지난 14일에는 음원으로 발매되었다. 가격은 15,000원.

온사랑합창단 후원콘서트 개최

7월 8일 오후 7시 서빙고 경찬홀

온사랑합창단이 7월 8일(토)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후원콘서트 '받는 사랑 보내는 사랑'을 개최한다. 이번 후원콘서트는 동경으로 아웃리치를 가는 주사랑 찬양사역팀을 후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콘서트 후원금은 주사랑

찬양사역팀에 전액 기부한다.

온사랑합창단은 2011년에 창단되었다. 30여 명의 단원과 전문음악인 10여 명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다. 2015년부터는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동경 기·도·제·목

- 6월 26일(월) 26번째 리브소나타 동경 집회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 6월 27일(화) 이재훈 목사님과 모든 강사, 출연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 6월 28일(수) 가스펠나이트, 리브소나타 참석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길
- 6월 29일(목) 모든 스테프와 봉사자들이 물 떠온 하인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 6월 30일(금) 낚시, 교통, 안전, 건강,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 7월 1일(토) 일본 목회자, 성도, 실행위원들 모두가 영적대각성을 경험하길
- 7월 2일(주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사가 될 수 있게 준비하도록

6월 세례자

■서빙고

곽재준 980821
박수정 801109
배은서 960226
육현주 741006
이수연 910716
이육재 760405
장유정 860608
전경진 840814
정동오 360910

입교

김현경 790916
장진경 890117
유아
강주원 160626
강동구 홍미영
권하민 160613
권영선 임은영
김리엘 151130
김태형 이주은
김은유 150925
김재환 전진영
김하성 160124
김규섭 조선영
김하은 170215
김용주 한지유
박동윤 150709
박재원 김애리
박민성 151217
박성은 강슬비
손소는 160906

손주현 전혜인

송중현 151112
송동욱 이리나
신영규 150819
신희립 조아련
신정민 160325
신동주 정민지
심주아 160502
심규철 이재은
임예나 160404
임송빈 양경혜
임주완 150905
임대원 신리현
최수호 150527
최규영 박수정
황한나 160502
황진수 남다린

특별한초대

김도현 810419
문영민 691030
오원택 880617
현정아 860929
유아
박태인 170126
박준식 문소희
이윤호 170213
이재훈 김혜화
최하람 170202
최기쁨 우수연
손소는 160906

■양재

김영룡 830425
김지인 910708
윤선영 791125
장미라 721214
정유민 810702
입교
박천완 860130
하진주 980109
유아
김은찬 150916
김성주 정진영
김지후 150903
김용성 전혜란
모주은 150715
모두열 이규미
박예훈 170112
박상규 박영경
박이찬 160304
박원욱 이서운
오하준 160803
오영석 장효은
조서울 151007
조용훈 박민주
조운우 160210
조성진 변혜윤
조이현 160523
조신혁 권성희

■대학청년부

갈렙
남현정 890704
이경훈 861006
여호수아
은진수 920409
진혜련 801125
한나리 841106
입교
양재원 910302
장은지 880628
하늘
김현수 981118
이도연 971124
현상인 941027

허브대학부

김기민 981218
김소원 920212
이남원 900516
입교
김호정 970902
민주원 921202
염수원 960206
이예은 980401

Pole2

김수현 930508

75기 샤이닝 글로리
7월 2~5일

75기 '샤이닝 글로리' 참가자를 모집한다. 샤이닝 글로리는 온누리교회의 대표적인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이다. 7월 2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제자수양관에서 개최된다.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회비는 38만원이다. 샤이닝 글로리 프로그램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문의: 02-3215-3744

Basic QT 서빙고
주일 오전반 개강

큐티를 알고 싶고, 큐티를 배우고 싶은 성도들이 들으면 좋을 'Basic QT' 주일 오전반이 개강한다. 매주 주일 오전 9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CGNTV 홍보관에서 큐티 나눔과 실습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 회비는 1만원

문의: 02-3215-3637

■ 북한선교학교 '통일촌'을 다녀와서



/ 강나영 자매(여호수아공동체)

“용감한 용사여”

휴전선 접경 지역 탐방을 앞두고 기대감이 생겼다. 북한 땅을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땅굴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북한선교에 대한 크고 멋진 비전을 보여주시는 소망과 기대감이었다. 부푼 꿈을 안고 임진각에 도착했다. 제3땅굴로 내려가는 길에 고개를 뺏뺏하게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거창하게 해드리겠다는 뉘앙스로 “주님, 제가 북한선교를 위해 무엇을 할까요?”라고 질문했다. 주님은 대답이 없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다짐을 하면서 걸었더니 어느새 땅굴 입구까지 내려왔다. 비좁고 낮은 땅굴을 허리 숙여 걷기 시작했다. 땅굴 속으로 들어가갈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좁고 깊은 지하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걷다보니 산소가 부족할 것 같고, 숨이 차고 막히는 것 같았다. 덜컥 겁이 났다. 혹시 사고라도 나는 건 아닌지 무서웠다. 허리가 아파 잠깐씩 펴기라도 하면 땅굴 천장에 머리를 찰기 일쑤였다. 땅굴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 깊고 좁은 땅굴을 판 북한이 섬뜩했다.

제3땅굴은 약 1.6km로 걸어서 왕복 30분이 채 되지 않는 거리다. 그 짧은 시간에 내가 한 생각은 온통 두려움과 걱정뿐이었다. 내내 무

섭다는 생각만 했다.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문득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궁금해졌다. 주변을 살펴보니 나처럼 겁에 질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나는 땅굴을 보고 나면 북한선교에 대한 결의에 찬 의지가 확 생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다. 겁 많은 내 모습을 뼈저리게 확인한 시간이었다.

“하나님, 이렇게 겁쟁이 주제에 북한선교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하겠어요?”

그렇게 망연자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다.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었다. 겁쟁이에 소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용사여”라고 부르셨는데 그 음성이 내 안에 퍼졌다. “내가 기드온에게 용감한 용사라고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따뜻하지만 분명한 주님의 음성에 나도 기뻐 대답했다. “기드온과 함께 하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북한선교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북한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이명란 성도

“엄마는 기도해, 나는 전도할게”

오래 전부터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을 받고 싶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다 올해 훈련을 받게 되었다. 복음전문 암송, 강의, 전도현장 실습, 필독서<영혼을 살리는 의사>를 읽으면서 전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짧은 시간 안에 전도가 가능한 복음전문을 전도현장에서 사용해 봤는데 매우 효율적이었다. 주님께서 예비 된 자들을 만나게 하셨다. 복음을 길게 전하지 않았음에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다.

전도는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도구로써 입만 열면 된다. 시간을 내고 순종하면 된다. 내 머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지식을 성령께서 꺼내어 쓰신다. 때문에 전도경험이 많은 훈련자가 전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전도에 필요한 말씀 암송도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많다. 이 수많은 영혼들을 언제 다 구원해 낼까.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 거룩한 부담감이 든다. 내 생명이 중요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다.

3개월 전 엄마가 천국에 가실 때였다. 성령

께서는 입관하신 엄마 앞에서 “엄마는 기도해, 나는 전도할게”를 두 번이나 크게 외치게 하셨다. 그래서 더욱 온누리전도학교에 오고 싶었다. 주님께서 1988년 온누리교회를 떠났던 나를 25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다. 고여있던 답답한 마음을 온누리교회에서 상쾌하게 하셨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물에 비유한다. 물의 속성은 흘러가야 그 깨끗함이 유지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조차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전파에 게으른 것 같다.

샘에서 물을 퍼낼수록 계속 물이 솟아나듯이 복음전파도 그러하다. 하면 할수록 쉽게 느껴지고 잘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샘물을 퍼내는 수고를 하되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 샘물을 목마른 영혼들이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기를 소망한다. 목마른 자들을 찾아다니고 시원한 샘물을 먹여주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내 남은 여생동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고 싶다.

■ 31기 양재 순장학교를 마치고



/ 이상화 성도(서초B공동체)

크고 넘치는 은혜

작년 여름 순장을 맡아주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하고 있는 일과 예정된 일들이 많아 거절했다. 사실 일이 바쁜 것도 있었지만 순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다행히 다른 분이 순장을 흔쾌히 맡아 주셔서 순장 제의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우리 순 모임은 매주 은혜롭게 이루어졌고 그날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느 누구도 순장님이 인도하시는 마지막 순예배가 될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 순장님은 순예배 다음 날 저녁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 순장님은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셨고, 순원들을 잘 이끌어 주셨다. 교회에서는 순원들을 원하는 순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순을 지키고 키워나가기를 강하게 원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순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서초B공동체 33순의 새로운 순장이 되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 그만큼 더 바빠지만 작년에는 고사하던 순장을 스스로 맡겠다고

했다. 나의 좁은 생각으로 준비를 더 하고 순장을 맡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나를 부르셔서 순장 직분을 맡기셨다.

나에게 순장학교는 맡겨진 직분을 더 잘 섬기기 위한 훈련 장소였다. 그러다 보니 매주 목사님들의 설교가 순을 잘 이끌어가기 위한 가이드로 여겨졌다.

아웃리치를 통해서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서울역 인근 쪽방촌 문을 두드리며 전도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곳에 사는 분들에 비해 내가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더 나아 수는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과의 은밀한 영적 관계에 있어 더 낫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매일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고 있지 않은 나였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쪽방촌 주민들보다 더 안타까워하실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은 순장학교가 아니면 알 수 없었을 소중한 경험들이다. 나는 이번에 바쁜 일정들 때문에 출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료하지 못했다. 하지만 순장학교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은혜를 고백한다.

■ KIBI IBS Shcool 수료 간증



/ 김나연 성도(S브릿지공동체)

주님 소개로 왔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말고는 성경공부에 관심이 없었다. IBS에 대해서도 익히 들어왔지만 별 관심은 없었다. 최근 회사 일로 마음이 복잡한 상황이 생겼다.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 기도만 하고 가려했다. 그때 교회 로비에서 IBS 참가신청 부스를 보게 되었다. 안내하시는 분께 설명을 들었더니 IBS가 새로워 보였다. 부담이 가는 성경공부보다 지식을 쌓는 느낌이라 선풍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주말반으로 신청했다. 조모임을 하면서 리더가 누구의 소개로 왔냐고 물어보셨던 기억이 난다. 이상하게 그 말이 큰 울림으로 남았다. 시간관계로 주중반으로 바꾸었고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늦더라도 꼭 참석했다. 열심히 책을 읽고 출석하는 내 자신에게 놀랐다. 일정이 끝나갈 때 즈음 내가 누구의 소개로 오게 되었는지도 명확해졌다.

이방인인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유대인들은 온갖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아픔에 처해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이상하게 거부감이 없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눅 21:24).

이 말씀과 예루살렘의 회복,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는 것은 비밀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나는 이 말에 거부감보다 부족한 나를 크리스천으로 초대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앞섰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사 62:6-7)는 말씀을 읽으며 더욱 명확해졌다. IBS 강의를 듣는 내내 주님이 예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 아직까지 나의 일상은 해결된 일이 없고 피곤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구원 받은 자로서 유대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시편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IBS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장로칼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상급



임희창 장로
(동대문중랑공동체)

“너는 아밋대의 아들이다.”

1986년 진로를 고민하며 금식기도를 하던 새벽에 천둥처럼 들려온 음성이다.

이 음성을 듣고 요나의 아버지가 아밋대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아밋대의 아들이라고 하셨을까? 나는 외국으로 도피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여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했다. 그곳이 선교지이고, 내가 갈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 속에 있는 농촌 학생들의 힘없는 눈동자를 보고 나서부터다.

내가 교사로 부임해서 먼저 한 일은 기독교 학생반을 만들어 매일 아침 QT로 하루를 시작한 것이다. ‘그루터기’라고 이름 지은 기독교학생반 30여 명의 학생들과 매일 저녁 6시에 모여 나라와 민족, 학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도 했다. 이와 같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 학교는 예배와 말씀, 기도가 살아있는 기독교 인문계 명문 학교로 성장했다. 지금 나는 전교생과 매일 소통하는 교장선생님이다. 나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교지라고 생각한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씀하신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철학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지금까지 잘 실천하고 있지만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도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세대에서는 우리 나라가 선교대상국이 될 수도 있다. 차세대 를 키우지 않아 교회들이 유흥업소로 변하고, 이슬람이 깊이 자리 잡은 유럽사회에서는 그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테러가 계속되어 공포와 어둠의 그늘이 사회에 드리우고 있다.

성경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시 127:3)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해 즐거움과 희망보다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교육 관련 기관들이 다양하고 수고로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길을 잃고 희망 없어 보이는 고통스러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 목표는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 문화명령(창 1:28)과 지상명령(마 28:19-20)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온누리교회는 CGNTV를 통해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잘 실천해 가고 있다. 이제 차세대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번 여름 아웃리치와 교회 교육 현장에 더 많은 투자와 기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회의 리더십인 장로님과 권사님,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또한 교역자와 교사, 교사와 학생, 부모 간의 수평적인 소통도 확산되어야 한다.

권사칼럼

모세기도방을 선택하길 잘했다



정승현 권사
(서대문공동체)

2006년 예수제자 학교(JDS)를 졸업할 즈음이었다. 교회 각 사역팀에서 JDS 졸업생들을 모셔가려고 경쟁이 붙었다. 여고를 졸업할 때 각 대학에 입학한 선배들이 찾아와서 자기 대학을 선전하고 입

학을 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교회 안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신기했고 의욕이 생겼다.

나는 주님께서 어떤 섬김과 사역을 주실까 기대하며 기도해 보기도 했다. 주님은 아웃리치를 통해 체험했던 경험을 자주 생각나게 하셨다. 마침 모 권사님 권유로 목요중보기도학교팀을 선택했고, 목요중보기도학교와 연결된 모세기도방을 섬기기로 결정했다.

2005년 말 여동생의 권유로 투자한 것이 잘못 되어 하루아침에 빈손이 되었다.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심각했다. 극단적인 생각도 했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모세기도방을 섬기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나에게 평안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회복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모세기도방에는 매주 200여 장의 기도카드가 올라온다. 우리는 각 사연들을 읽으면서 기도한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 사연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있다. 눈물과 콧물범벅이 되어 기도를 한다. 기도는 호흡과 같으며 막힌 하수구를 뚫는 힘이

있다고 선포한다. 기도카드의 내용들은 나라와 민족, 교회, 부모구원, 사업실패, 가족 간의 갈등, 재산문제, 법적인 일, 원인모를 질병, 영적 문제 등 아주 다양하다. 그중에서 어린이가 희귀성 질병에 걸렸다는 사연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 이럴 때면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떼를 쓴다.

잔잔한 시냇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 궁극적으로 축복의 잔을 들게 하신다.

중보기도를 하고 나면 며칠 뒤에 응답되었다는 카드가 올라온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특권과 권세를 알게 된다.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부터 한다. 성령이 임하면 산과 언덕이 환호성을 치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짙은 나무가 사라지고, 꽃피는 화석류가 생기기 때문이다. 거대한 복음의 저수지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을 골짜기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험시바라하며 네 땅을 뿔라라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사 62:4).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뻐하는 신부처럼 만나주겠다고 하시고, 버림받은 자처럼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10년 이상 섬기고 있는 모세기도방은 나에게 주어진 날이다. 80세를 바라보며 모세기도방을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해본다.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세기도방을 지키는 중보자로 살 것이다.

신앙에세이



우윤상 목사
(요성공동체)

대중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감성’이다. 영화나 음반, 공연 등 모든 대중문화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이 대중문화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중들이 얼마나 공감하

느냐 이기 때문이다. 공감 여부에 따라 영화나 음악, 공연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장르지만 공감성에서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영화 회사가 있다. 슈퍼히어로들을 앞세워 최근 영화계 콘텐츠를 책임지고 있는 ‘마블’과 ‘DC코믹스’라는 영화사다. 마블과 DC코믹스가 슈퍼히어로물의 콘텐츠를 양분하고 있다. 마블코믹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엑스맨 등이 있고, DC코믹스의 대표작품으로는 슈퍼맨과 배트

맨을 꼽을 수 있다.

이 두 영화사가 만드는 슈퍼히어로들의 캐릭터와 스토리는 전혀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DC코믹스

의 영웅들은 완벽한 선과 영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반면 마블코믹스는 영웅들의 정체성과 고뇌에 대해 이야기하며 완벽하지 못한

영웅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같은 히어로물이긴 같은 시기에 영화가 나오지만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영화의 성패는 감독이 이끌어가는 영화의 스토리와 컴퓨터그래픽(CG) 차이, 배



우의 연기력 등으로 결정되지만 이 두 회사는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는 공감성에서 차이가 난다. 관객의 공감을 산 쪽은 마블이다. 관객

수에서 DC 코믹스보다 앞서 있다. DC코믹스의 캐릭터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선(善)을 나타내는 반면 마블의 캐릭터는 우리네 삶과 마찬가지로

결점을 가지고 있다.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천재과학자 헐크, 부모를 잃고 아크원자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이언맨, 돌연변이로 인한 차별의 아이콘 엑스맨 등 슈퍼히어로이지만



결핍의 상징이기도 한 그들의 일대기는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과 희망을 불러일으켜 준다. 결핍 캐릭터에 사람들이 공감하게 하고, 공감은 집중과 동일시를 불러오며, 결과적으로 내면에 있는 결핍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큐티 나눔과 순모임에도 결핍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나의 결핍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기도 하고, 내 부족함이 누군가에게 희망과 소망이 된다. 말씀으로 상처를 딛고 일어난 나눔은 누군가에게는 슈퍼히어로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다.

슈퍼히어로를 통해 갈등과 결핍을 해결하는 시대이다. 이럴 때일수록 완벽한 나눔과 완벽한 인성, 온전해 보이는 모습 대신 연약함을 드러내고, 함께 나누며, 보듬고, 기도해줄 수 있는 나눔이 필요하다. 나의 상황을 나누는 것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수이며, 우리의 진정한 영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슈퍼히어로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순종의 복

여호와께서 네 창고와 네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내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그 땅에서 네게 복 주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네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7~10절).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모든 민족보다 너를 높이 세울 것이다’입니다.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을 높이십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세상의 머리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무엇입니까. 권력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을 높이 들어 세우시고, 그들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결코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을 왜 머리가 되게 하십니까. 왜 높이 세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은 결코 한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쓰임 받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번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번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몸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곳을 보충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상처가 나면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도 뇌가 온 몸에 신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가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 주

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까지 뇌는 계속해서 우리 몸을 깨웁니다. 이와 같이 머리는 항상 전체를 생각합니다. 균형을 생각합니다. 나눔을 생각합니다. 머리는 지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의 상처 하나까지도 회복될 때까지 절대로 쉬 수 없습니다. 머리는 항상 전체를 생각합니다. 신체의 한 부분이 자기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들을 머리가 되게 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 흘러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순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선물

죄는 불순종을 통해 들어왔고, 복은 순종을 통해 흘러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것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순종의 DNA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야만 했던 것은 바로 이 불순종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이 범한 불순종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제거하셨습니다.

앤드류 마레이가 쓴 〈순종〉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순종에는 세 가지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보냄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

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보증입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셋째,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은 우리 스스로 이를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의 머리로 세우신다는 것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 스스로 이를 수 없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의 불순종이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순종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순종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되어 세상에 영향력 미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_회복과 의사소통

진정한 회복이 무엇일까? 바로 내면의 회복이다. 나 자신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물이 가득 차 있는 물병을 인생이라고 하자. 그 물병을 손으로 치면 물병에서 물이 쏟아진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다. 무엇이든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병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나를 세계 치면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내가 맞았기 때문에 상대를 원망한다.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교회 때문에, 문화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들만 온전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여긴다. 그런데 그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상대에게서 찾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동일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하와는 뱀, 아담은 하와 탓으로 돌렸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다. 그러나 사실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먼저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기 전에 문제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도망치지 않고 온전히 직면해

야 한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이때 자신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나와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먼저, 긴장된 상태를 잘 다루어야 한다. 긴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긴장한다는 것은 내 안에 문제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긴장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긴장을 어떻게 다루냐이다. 만약 어떤 조직에 긴장감이 조성됐다고 하자. 당신이 리더라면 이 긴장감을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긴장을 풀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 긴장감을 더욱 상승시키고 만성적 근심과 같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결국 조직 안에 분열이 일어나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좋은 방법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에덴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질문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창 3:9).

복음서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질문해야 한다.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질문하는 문화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이 왜해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좋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아야 한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능 중 하나가 자신을 방어하는 것인데 내면에 가치 있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다. 내면의 가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립되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직면할 수 있게 된다. 함께 이야기할 때는 감정을 나누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

럽게 나의 감정이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다. 바로 세상을 명명하는 능력이다. 아담의 첫 역할도 만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다. 지금도 우리의 역할은 세상에 있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똑같은 실이라도 치실이 될 수 있고, 낚시줄이 될 수 있다. 내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관계도 달라진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감으로 성장해야 한다.

* 이 글은 지난 11일 양재 베이직큐티사 역팀이 매년 2회에 걸쳐 진행하는 외부 강사 초청 세미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Matt Rawlins
(YWAM 강사, 경영과 커뮤니케이션 전공 리더십개발과 커뮤니케이션 박사)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윤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배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일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 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 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 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 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 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 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일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신관 4층 누리홀

CMN 라파뎀 의사 봉사자 구함

내용: 서빙고 온누리교회 외국인 진료

일시: 셋째 주일 오후

문의: 심형섭(010-3227-9915)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채용공고

모집: 서빙고 커피숍 직원, 서빙고 양식당

조리원, 양재 한식당 조리사 및 조리

원, 양지 기관시설 직원, 양지 보안관

리 직원(1년 기간제계약직)

자격: 세례교인, 경력무관(경력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장간증문

접수: bible81@onnuri.org

문의: 총무팀(02-3215-3102)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

(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문의: 02-3215-3178-9

두란노서원 잡지마케팅팀 채용 공고

모집: 편집 및 광고, 홍보 디자이너(1명)

자격: 경력 2~5년, 디자인 전공자, 인디자

인, 포토샵, 일러스트 가능자

서류: 7월 31일(월)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어린이 창조과학 탐사

일시: 7월 1일(토) 오전 8시~오후 6시

장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창조전시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관

강의: I. 창조와 진화

II. 사물에 나타난 창조 질서

신청: 초등3~6학년(회비 2만원)

문의: 창조과학선교팀(010-3869-7785)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 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 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 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 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 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

N I V - D K V P A R A L L E L B I B L E

최신판 NIV BIBLE과

우리말성경으로

성경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 최신판 NIV BIBLE
- 우리말성경 2014년 3판
- 읽기 편한 본문 배열
-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
- 본문 관통 책별 서론
- 성경 범주별 컬러 인쇄



두란노 NIV 우리말성경 (중)

중단본 · 색인 · 사전식

블루 | 다크브라운



두란노 NIV 우리말성경 (소)

소단본 · 색인 · 사전식

브라운 | 카키



두란노 NIV 우리말성경 한영새찬송가

중합본 · 색인 · 지퍼식

다크브라운